

지우개가 없는 세상, 노르웨이

KU Nordic 탐사연구 프로젝트 개인 경험보고서

2014230081 국제학부 김지우



사람들에게서 지워지는 것. 아마 세상에서 그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을 것이다. 자기 자신. 그 안에 깃든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그 외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규정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한 번에 일제히 부정당하는 것이 바로 지워진다는 것의 의미인데, 어떻게 이것이 안 두려울 수가 있을까.

그 두려움의 크기를 증명하기라도 하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는 사람들이 지워지지 않기 위해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는지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청동기 시대에 권력자들은 수백 명을 부려가면서까지 자신의 죽음을 기리는 고인돌을 만들었고, 오늘날에도 누군가는 자신이 지워진 후에도 잘 사는 전 연인의 모습이 믿기지 않아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을 계속 들어가 보게 된다. 분명 비합리적인 행동들이지만, 그 비합리성의 단면을 보며 우리는 잊혀지는 것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엿볼 수 있다.

지워진다는 것. 그것은 가히 형벌이라는 단어로 표현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가혹한 일이다. 하지만 더욱 슬픈 것은 바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이 가혹한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다. 초등학생 때부터 10년 남짓을 극심하게 경쟁적인 환경에서 자라야 하는 대한민국의 학생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2년을 국가에 헌신해야 하는 군인들. 그리고 그 외 동성애자와 장애인을 비롯한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들. 우리는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버림으로써 그들을 사실상 지워버리기 십상이다.

나는 특정 사회 집단들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지워지는 현실에 문제 의식을 품으면서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항상 회의감이 들었던 것 같다. 사람이란 원래 자신과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는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는 동물이고, 그 공포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계속 지우개를 들고 세상이라는 종이의 한 구석을 뽁뽁 문지르고 있지 않을 까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지난 주에, 도무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세상을 마주했다. 그 세상의 이름은 바로 노르웨이이다. 아무도, 아무에 의해서 지워지지 않는 사회. 그러한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회는 정말 실재하는 것이었다.

“나는 양성애자야.” 한국에서는 입에 담기까지 40년도 넘게 걸릴 수 있는 이 말을, 노르웨이에서 만난 한 친구는 나를 처음 본 지 4일 만에 털어놓았다. 그것도 심심한 농담을 주고받고 있던 매우 일상적인 순간에 말이다. 부러웠다. 타인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자신의 정체성마저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 친구가. 그리고 그 친구를 머금고 있는, 평등이 헌법의 글자를 넘어서 삶의 방식으로 자리잡아버린 세상이.

처음에는 어떻게 실재할 수 있는지 이해가 잘 안되었던 노르웨이 사회의 관용은, 프로그램 내에서 진행된 강의를 들으며 서서히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NEWDAY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듣게 된 여러 강의를 종합해봤을 때, 노르웨이는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건을 몇 가지 갖추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신뢰’였다. 프로그램 3일차에 수강했던 Joakim 교수의 강의에 의하면, 노르웨이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의 국민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았다. 요아킴 교수님께서서는 노르딕 국가의 응답자들이 ‘자국민을 신뢰합니까?’나 ‘자국 정부를 신뢰합니까?’라는 설문 질문에 대해 70% 이상의 긍정 답변을 보여줬다는 통계를 언급하면서, 노르웨이가 지금의 사회경제적 호황을 쌓을 수 있었던 기저에는 높은 신뢰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본 강의를 들으며, 나는 노르웨이 내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비교적 덜 발생하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다. 혐오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두려움이다. 사람들은 본인이 잘 모르는 존재를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공격적 방어기제로써 이질적인 집단을 혐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많은 미국인들조차도 9/11 테러 이후 해당 집단 전체를 테러의 온상으로 규정하는 정책에 지지를 보낸 것이 이를 반증하는 단적인 예시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두려움 대신 신뢰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혐오가 존재하기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노르웨이에서는 이 신뢰가 대다수 노르웨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혐오라는 방어기제가 발현될 필요가 없어진 것이 아닐까?

신뢰에 관한 강연에 이은 다른 강연들을 듣고 나서는 노르웨이가 가진 것이 비단 신뢰뿐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노르웨이는 사회에서 신뢰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 역시 갖추고 있었다. 프로그램 셋째 날에 진행된 ‘나의 국가와 나’ 세션에서 노르웨이 학생들이 타국 학생들에게 설명해준 자국의 복지 시스템은 가히 놀라웠다. 대부분의 질병에 대하여 국가가 치료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포괄적 의료보험체계, 42주간 임신 전 근로소득을 전액 보장해주는 적극적 출산휴가 제도, 그리고 퇴직 전에 받던 급여의 80%를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노후복지제도까지.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노르웨이의 복지 제도는 정말 탄탄하고 포괄적이었다. 신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타인을 믿을 여유가 있는 와중에만 싹틀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노르웨이의 복지 제도는 자국민들로 하여금 타인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물질적 여유를 제공해 줌으로써 사람들 간 신뢰가 생길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해주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르웨이의 학생들과 강연자들로부터 노르웨이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난 뒤, 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적극적 복지 정책에 기반해 신뢰 사회를 구축하는 노르웨이의 방법론이 과연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불행하게도, 프로그램이 끝나갈 때 즈음에 내 머릿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은 바로 ‘그럴 수 없다’는 대답이었다. 이 결론에 대한 근거는 바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게 된 노르딕 모델의 근원에 있었다.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노르웨이 학생들과 얘기를 나눴던 결과, 노르딕 모델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원동력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팔아 운영되는 국부 펀드와 높은 수준의 조세 수입이다. 고로 노르딕 모델이 어떠한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희소한 자원이 존재해야 하며, 높은 세율을 강제할 수 있을 만한 현실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에는 이 두 가지 조건 모두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우선적으로, 한국에는 석유에 준하는 희소자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노르딕 모델이 요구하는 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높은 세율에 기반한 복지 국가라는 모델에 대해 범국민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노르웨이와 달리, 한국 내에서는 국가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더욱 다양하게 존재한다. 어떤 이들은 노르딕 모델과 같은 적극적 복지모델을 갈망하는 한편, 반대편의 사람들은 정부가 국방이나 치안 등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하며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금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토록 엇갈리는 한국 사회에서 적극적 복지를 위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NEWDAY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내가 노르웨이에 대해서 가지게 된 가장 강한 인상

은 바로 이 나라가 한국과 매우 다른 나라라는 것이었다. 노르웨이가 한국이 아니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나에게 매우 기쁘면서도 안타까운 사실이었다. 한국과는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나라에 대해 공부할 기회가 있었던 것은 분명히 매우 값진 경험이었지만, 그 평등주의적인 사회를 지탱하는 데에 석유 수입과 높은 조세 수입 등 한국이 현실적으로 가지기 힘든 요소들이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나에게 매우 슬프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에서 본 사회가 한국에게 없는 동력으로 지탱되는 것이라면, 내가 이 나라에서 목격한 따뜻한 사회상 역시 한국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일까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내 머릿속을 감돌았다.

하지만 미리 기죽어 있을 필요는 없을 듯하다. 비록 노르웨이가 한국이랑 매우 다른 사회라고 할지라도, 노르웨이 사회의 따뜻함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국도 가질 수 있는 무언가이기 때문이다. 그 무언가는 바로, 대화를 하고자 하는 열려 있는 마음이다. 서로 다른 시스템 속에서 자라온 중국, 한국, 그리고 노르웨이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에 부분적으로나마 서로에게 공감할 수 있게 되었듯,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바로 대화를 통해 각 이해 당사자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 맥락을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시스템이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와 신뢰가 그 대화를 촉진할 수 있을지언정, 한국 역시 한국만의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 간의 대화를 촉진한다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따뜻한 사회로 전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서로 지우개 대신 연필을 들고 지워진 사람들이 남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려주는 사회. 그러한 따뜻한 사회를 상상할 때 사람들이 조만간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연상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부록: 다음 기수 참가자들이 참고하면 좋을 사항

- 남중국해, 대만, 홍콩 문제 등 중국인들에게 민감한 주제를 언급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한국이나 노르웨이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민감한 질문을 할 때보다 더 개인적이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노르웨이는 예전에 나치 독일에 점령당한 역사가 있다. 고로 홀로코스트나 나치 관련 내용을 노르웨이 학생들에게 언급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 타국 학생이 함께 이야기하러 한국 학생들만 있는 무리에 왔는데도 계속 한국 학생들이 한국어로 말하면 해당 타국 학생은 소외감을 느낀다고 한다. 타국 학생이 근처에 한 명이라도 보인다면 가급적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 8월의 노르웨이는 전반적으로 날씨가 흐리며 비도 종종 온다. 그렇기 때문에 짐을 챙길 때 캐리어 안에 작은 우산을 넣어가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 난센 아카데미의 숙소 안에는 커피 포트가 존재해 컵라면을 한국에서 구매해 오면 먹을 수 있다. 난센 아카데미의 식단에 따라 건강하게 식사하는 와중에 한국 음식이 그리워질 것 같다면 컵라면을 비롯해 끓인 물로 취식할 수 있는 한국 음식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 듯 하다.

KU NEWDAY 2019 활동 사진



그림 1 프로그램 6일차에 Nansen Academy 교사 Steiner 선생님의 자택에 초대받았을 때의 사진.



그림 2 “교육은 수단인가, 목적 그 자체인가?”라는 주제로 진행한 조별 토의의 결과를 발표하는 사진.



그림 5 프로그램 8일차에 강의를 듣고 질문하는 나의 사진.



그림 4 강의 직후 쉬는 시간. 강의에서 다루어졌던 주제에 대해 담소를 나누고 있다.